

석유제품 품질 국내정유사 제품이 월등

환경부 품질조사 결과, 수입사 제품보다 벤젠 황함유량 모두 낮아

국내 정유사가 생산,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유의 품질이 벤젠, 황함유량 등 조사항목의 모든 부문에서 석유수입사들의 수입제품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지난 2002년 7월부터 도입한 자동차 연료 품질 공개제에 의거해 실시한 올 1분기 자동차 연료 품질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SK(주), LG-Caltex정유(주) 등 국내 정유 5사와 최근 3개월간 수입실적이 휘발유 5만배럴, 경유 15만배럴 이상인 석유수입 5개사(타이거오일, 페타코페트롤륨, 리드코프, 이지석유, 오렉스) 등 10개업체를 대상으로 휘발유(벤젠, 황함량), 경유(황함량) 제품에 대해 이뤄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유5사 및 수입 5사의 휘발유, 경유 품질은 모두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품질 공개제 도입이전에 비해 항목별 품질기준이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평가다.

정유사 제품의 품질수준은 휘발유의 벤젠 함량(기준치 1.5% 이하)은 5사 평균치가 0.4%이며, 경유의 황함량(기준치 430ppm)도 5사 평균치가 104ppm으

품질분석결과

국내5사 평균	구 분	수입사 평균	페타코	타이거 오일	이지 석유	오렉스	리드 코프
0.4	휘발유벤젠 (기준1.5%이하)	0.9	1.0	0.6	1.4	미채취	0.7
25	휘발유 황 (기준130ppm이하)	111	104	95	129	미채취	114
100	경유 황 (기준 430ppm이하)	202	202	-	-	미채취	-

로 품질기준치를 훨씬 여유있게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수입사 제품의 경우 휘발유의 벤젠 및 황함량이 5개사 평균 0.9%와 111ppm으로 국내 정유사 평균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페타코사의 경우 황함량은 202ppm으로 정유사 평균치(104ppm)보다 거의 2배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내 정유사와 석유수입사간의 조사항목 비교에서는 수입사의 휘발유 벤젠 2.3배, 황함량 4.4배, 경유 황함량 1.9배 정도가 국내 정유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정유사 생산제품이 환경품질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